2026.10.01.

애큐온캐피탈의 신용등급 '긍정적 검토' 대상 등록:

무보증사채 A(S)→A↑,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A2↑

윤희경 금융1실 수석연구원
02.368.5537
heekyoung@korearatings.com

김태현 금융1실 실장
02.368.5319
thkim@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10월 1일자로 ㈜애큐온캐피탈(이하 '동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2**로 유지하고, 각각 **긍정적 검토(Positive Review)** 대상에 등록하였다. 한화생명보험 자회사로의 편입이 완료될 경우 동사 신용등급에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1] 등급 조정 내역

회사명	평가대상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Watch**
애큐온캐피탈	무보증사채	A	안정적(Stable)	**A**	**긍정적 검토**
	기업어음	A2	-	**A2**	**긍정적 검토**
	전자단기사채	A2	-	**A2**	**긍정적 검토**

1. 등급감시대상(Rating Watch) 등록 사유

한화생명보험과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이하 'PEF')는 2026년 9월 30일자로 동사의 최대주주인 Agora L.P.로부터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화생명과 PEF가 취득할 예정인 동사 지분율은 각각 50.5%, 49.4%(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제외 기준)이다. 취득예정일자는 향후 감독당국의 승인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주주간계약에서 명시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PEF는 한화생명보험에게 PEF가 보유하게 될 동사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화생명보험은 PEF가 보유하게 될 동사 지분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및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화생명보험이 동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사의 완전자회사인 애큐온저축은행은 한화생명보험의 손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표 2] 주식매매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주식	애큐온캐피탈 보통주 34,624,153주
매도자	Agora L.P.
매수자	한화생명보험(17,511,066주),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17,113,087주)
계약체결일	2026년 9월 30일
거래종결일	미정

인수 완료시 동사는 한화생명보험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이는 계열의 지원가능성 측면에서 동사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한화생명보험은 업계 2위권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로 한화계열 금융부문의 주력 회사이며, 최고 수준의 신용도(AAA(안정적))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한화생명보험의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한화계열 금융부문의 지원능력과 지원의지를 감안한 계열 지원가능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2. 한화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

한화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화생명보험의 동사 지분 취득가액은 4,400억원으로, PEF와의 공동 매수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소요는 예상보다 감소하였다. 동일자로 공시한 한화투자증권 전환우선주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2,500억원)도 있으나, 운용자산 및 현금성자산 규모(2026년 6월말 각각 103.4조원, 1.2조원)를 감안하면 유동성 관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ICS 비율은 요구자본 증가로 인해 인수 완료 시점에 5%p 내외의 하락이 예상된다. 한화생명보험의 2026년 6월말 기준 K-ICS 비율은 168.0%로 개선되었으나, 경쟁사 대비로는 낮은 편이다.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향후 PEF가 매수한 지분을 추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업적인 영향은 중립적이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인수로 리스크 관리 측면의 부담은 커지지만, 비보험부문 포트폴리오 강화와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기반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